

VOLKSWAGEN

GROUP KOREA

폭스바겐그룹코리아

VOLKSWAGEN

GROUP KOREA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산하에 폭스바겐, 아우디,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네 개의 강력한 브랜드를 두고 있으며,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개성에 부합하는 폭넓은 브랜드를 수입, 판매하며 한국 수입차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네 개 브랜드에 걸쳐 연 판매량 총 40,838대를 기록하며 전체 수입차 시장(296,887대)에서 약 1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주도형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폭스바겐그룹의 '뉴 오토(NEW AUTO)' 그룹 전략과 연계, 그룹과 브랜드 간 그룹 시너지 및 전동화 전략을 앞세운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 환경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책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CSR 활동은 크게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사업 (투모로드 스쿨), ▲미래인재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사업 (산림복원 및 산림녹화, 탄소중립 숲 조성, 초록빛 꿈꾸는 통학로, 교실숲 프로젝트), ▲전시공간 및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문화사업 (고투제로 전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사업 (겨울방한키트, 시크릿 산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독일 본사가 지원하는 비영리 코딩학교 '42 볼프스부르크' 및 국민대학교와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자동차 특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파일럿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13명씩 총 39명의 학생을 독일 42 볼프스부르크 캠퍼스로 보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오토모티브 및 모빌리티 에코시스템(SEA:ME)' 18개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한국 시장의 지속가능한 파트너로서 산하 네 개 브랜드에 걸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및 전동화를 앞세운 미래전략,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한국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변화에 앞장선다는 전략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틸 셰어(Till Scheer) 그룹사장이 2021년 10월에 부임, 네 개 브랜드의 비즈니스와 그룹의 전반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2004년 설립됐으며, 현재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vwg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VOLKSWAGEN

GROUP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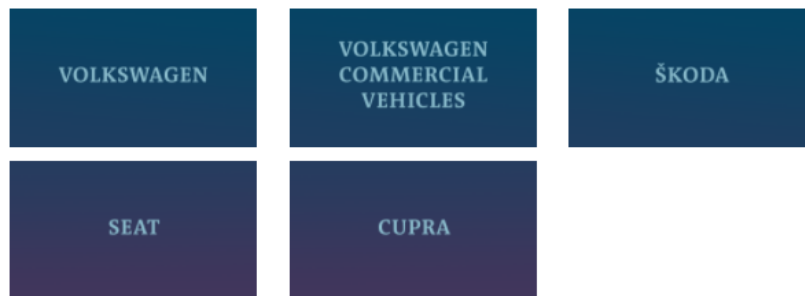
폭스바겐그룹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폭스바겐그룹은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기업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이다. ▲폭스바겐(Volkswagen), ▲폭스바겐 상용차(Volkswagen Commercial Vehicles), ▲스코다(SKODA), ▲세아트(SEAT), ▲쿠프라(CUPRA), ▲아우디(Audi), ▲람보르기니(Lamborghini), ▲벤틀리(Bentley), ▲포르쉐(Porsche), ▲두카티(Ducati) 등 유럽 7개국의 10개 브랜드가 그룹에 속해 있다.

소형승용차부터 럭셔리 승용차, 모터사이클, 그리고 픽업 및 버스, 대형트럭 등의 경량부터 대형 상용차까지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에 더해 추가적인 폭넓은 브랜드와 사업부를 두고 있는데,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는 딜러와 고객을 위한 금융 상품, 리스, 은행 및 보험 업무, 차량 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 672,800명의 직원이 차량 관련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의 다른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53개국에서 차량을 판매한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 890만대(2020년 930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2021년 그룹 총 매출액은 2,502억 유로(2020년 2,229억 유로), 당기순이익은 154억 유로(2020년 88억 유로)를 기록했다.

Volume



Premium



Sport



VOLKSWAGEN

GROUP KOREA

그룹 전략 '뉴 오토(NEW AUTO)'

폭스바겐그룹은 그룹 전략 '뉴 오토(NEW AUTO)'를 통해 자동차 제조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선도적인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메카트로닉스, ▲소프트웨어, ▲배터리 및 충전, ▲모빌리티 솔루션 등 4대 기술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뉴 오토를 발표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네 개 부문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메카트로닉스 플랫폼

폭스바겐그룹의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MEB(modular electric drive toolkit)는 e-모빌리티의 업계 표준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포드와의 협력은 MEB를 기반으로 하는 또 다른 BEV 모델로 확장, 앞으로 6년 동안 포드가 MEB를 기반으로 생산하게 될 차량 물량은 기존 계획의 두 배인 120만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그룹은 2026년, 미래 기술을 확장형 시스템 플랫폼(Scalable Systems Platform, SSP)에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SSP는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MEB)과 프리미엄 전기차 플랫폼(PPE)의 뒤를 잇는 차세대 전기차 전용이자 완전히 디지털화된, 고도로 확장가능한 메카트로닉스 플랫폼이다. 향후에는 그룹 산하 전 브랜드의 모든 세그먼트 모델을 SSP에 기반해 생산하게 되며, 이는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4천만 대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은 SSP를 통해 자동차의 혁신 기능들을 전 브랜드에 걸쳐 빠르고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SP가 자율주행의 핵심이 되는 동시에 복잡성과 개발 비용을 줄여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그룹 산하 브랜드들은 다양한 크기의 플랫폼과 각기 다른 모듈을 결합함으로써 차별화할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아우디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는 2025년에 최초로 SSP 모듈을 사용할 예정이고, 트리니티(Trinity)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폭스바겐은 2026년 대량생산 모델에 SSP 기술을 첫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VOLKSWAGEN

GROUP KOREA

소프트웨어

폭스바겐그룹 자체 소프트웨어 및 기술회사인 카리아드(CARIAD)는 오는 2025년, 그룹의 모든 브랜드를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플랫폼 2.0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표준 소프트웨어 스택은 그룹과 산하 브랜드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레벨 4)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전 브랜드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전체 제품 수명주기에 걸쳐 고객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2030년이면 이 소프트웨어 스택을 적용한 폭스바겐그룹 자동차가 4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은 전체 업계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카리아드는 2025년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비중을 현재 10%에서 60%로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전략적이고 강력한 파트너십이 해당 전문 분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미 헬라(Hella)의 카메라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을 성공적으로 통합했고, 보쉬(BOSCH)와는 레벨3 자율주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카리아드는 그룹 산하 전 브랜드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그룹 전체의 모빌리티를 혁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와 충전

폭스바겐그룹은 2040년, 전 세계 모든 주요 시장에서 그룹 자동차 100%의 기후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핵심은 빠르고 간편한 충전이 가능한 자체 배터리 공급, 그리고 포괄적인 인프라다. 에너지 서비스 또한 그룹이 새로운 모빌리티 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자 추가적인 수익원이다.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배터리다. 수리와 재활용을 포함한 자체 배터리 생산이 가능해지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그룹이 추진 중인 새로운 '통합형 셀(unified cell)'의 주된 역할로, 2023년에는 여러 개의 다른 셀이 아닌 단일 셀이 그룹에서 생산하는 대부분의 모델에 적용될 예정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그룹은 e-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파트너들과 함께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완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동차 자체가 이동가능한 지능형 파워뱅크가 되는 것이다. 전기차의 기후중립 여부는 100% 친환경 전기에 달려있는데, 그룹은 이에 대한 자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자회사 엘리(Elia)가 전동화를 위한 에너지 서비스 공급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VOLKSWAGEN

GROUP KOREA

모빌리티 솔루션

2030년까지 폭스바겐그룹은 자율주행 셔틀 플릿을 위한 시스템 역량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플릿 일부를 자체 보유하고 모빌리티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 옵션 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서비스형 모빌리티(MaaS)와 서비스형 운송(TaaS), 완전한 자율주행은 그룹 전략인 뉴 오토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가치사슬은 무인 주행 시스템, 차량 내 통합, 플릿 관리, 그리고 고객을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 아르고 AI(ARGO AI)는 자율주행 셔틀을 위한 무인 주행 시스템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카리아드는 승용차를 위한 레벨 4 자율주행을 개발 중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신경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또한 모빌리티 포트폴리오의 필수 요소다. 새로운 ID. 버즈 AD는 아르고 AI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이미 뮌헨에서 자율주행 도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미국 내 테스트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다. 목표는 2025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상용 AD-라이드풀링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룹은 향후 몇 년 안에 산하 브랜드의 모든 모빌리티 제품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래 주요 사업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추가적인 판매 잠재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렌트와 구독에서부터 차량공유(카셰어링) 및 차량호출(라이드헤일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총망라하는 공동 차량 플릿을 통해 수준 높은 가용성과 수용력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